

특집

2020년 한국의 건설산업

미래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 글로벌 경제와 녹색 패러다임

성 유 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sungyk@cerik.re.kr

다 가을 2020년, 건설산업을 변화시킬 동인은 무엇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설문조사를 통해 산·학·연 건설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설문 결과 ‘글로벌 경제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 등 녹색 성장 이슈’가 건설산업에 변화를 일으킬 가장 큰 동인으로 공동 선정되었다. 올 한 해 중요 이슈였던 글로벌화와 녹색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벌화와 녹색 패러다임은 이미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대한 흐름을 의미하는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과거 10년이 정보통신 기술이 이끌어온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은 글로벌 경제와 녹색 패러다임이 변화를 이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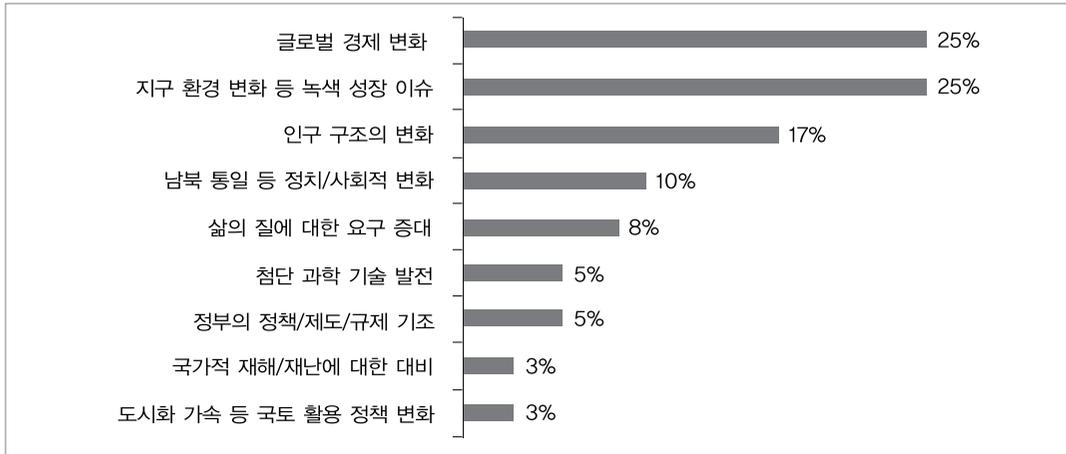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변화 - 무한 경쟁

경제의 글로벌화는 산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수시장에 확실한 기반을 둔 산업이라도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글로벌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글로벌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건수는 1994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91건이었으나, 1995년 이후 현재(2011년 5월)까지 20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현재 44개국과 7건의 FTA 발효, 1개국과 1건의 FTA 타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중에 있다. 전 세계 단일 문화권, 단일 경제권은 오늘도 진행 중이며, 경제에서의 국경은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진출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국내 건설산업도 기록적인 해외 수주액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국가간, 기업간의 심화되는 경쟁도 의미하고 있다. 세계 경제 통합으로 기업은 전 세계라는 거대 시장을 얻었으나, 더 많은 경쟁자가 새로 생겼다.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각 국가의 재정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설문조사 결과



악화와 신흥 강국 기업의 등장으로 저성장 경쟁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폐를 건 경쟁이 예상된다. 기업이 처한 이러한 입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표현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기업 조직과 상품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및 사업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 구조가 요구된다. 상품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시킨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설산업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설계와 시공이 중심인 건설산업에서조차 2000년대로 들어서며 금융 분야, 유지보수 분야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노동력, 자본, 자원 등의 손쉬운 이동은 국가 간의 분업 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즉, 핵심 기술 부문은 기업이 최대한 직접 소유하나, 단순 생산 단계의 아웃소싱은 저임금의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좋은 생산성, 효율성을 가진 기업이 살

아남게 되는 것이다.

녹색 성장 이슈

지구 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은 오래 전부터 경고되어 오던 문제이다. 환경오염과 자연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에너지, 물, 식량 자원의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 파괴와 오염이 선진국에서는 만성적 환경 질환을 가져오고, 개도국에서는 산업 화학 물질에 따른 생명 위협이 잦아지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은 실천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온실가스의 배출을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규제와 압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것이다.

환경오염의 영향은 발생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 및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친환경 기술 및 산업이

특집 2020년 한국의 건설산업

급성장하고 있다. 녹색 환경의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하다.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도시에서 녹색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은 단지 환경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 시대의 견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Green' 패러다임에 따라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건물, 대중교통 수단과 같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건설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기타 변화 동인

한편,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중 '인구 구조의 변화', '남북 통일 등 정치·사회적 변화'도 설문조사에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령화와 생산 인력의 부족, 주거 문화의 변화 등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력의 부족은 인적 자원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 통일 등 정치·사회적 변화'는 남북관계 경색이 완화되고 화해와 통합 분위기가 진전될 경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갈등 심화보다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남북 교류를 위한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논의 착수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첨단 과학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제

도·규제 기조'는 건설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임에도 파급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이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속도가 늦다는 점, 또 향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혁신을 기대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IT, BT, NT, RT 등 과학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각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산업도 상품, 생산 기술, 생산 체계 등에서 다방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 혁신은 높이 828m의 초고층 빌딩 부르주 칼리파가 건설되듯이 상상 속에서 가능하던 건설 상품들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정책·규제 기조'는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보다 뒤늦다는 점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산업에서도 공공부문 발주자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 정부로의 변화가 제도의 효율화를, 건설시장의 글로벌화가 자율 규제 환경을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흐름... 준비해야

본고에서 제시된 향후 10년을 이끌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들은 건설산업 전문가들이 익히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다.

거대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망되고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12년을 맞이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능력일 것이다. CERIK